

荏子島의 先史遺蹟

—全南 西南海岸 一帶의 考古學的 調查 研究(3)—

崔 夢 龍*

目 次

1. 序
2. 荏子島의 先史遺蹟
 - 가. 구산리 鹽洞貝塚
 - 나. 三頭里貝塚
 - 다. 大機里 支石墓
 - 라. 단도리 支石墓
3. 荏子島의 先史文化

1. 序

荏子島는 現行政區域上 全南 新安郡 荏子面에 屬하며, 木浦港에서 西北向 直線距離 約 40km 떨어져 있으며, 經度 126°2'~126°10', 緯度 35°3'~35°8'에 位置하고 있다.

섬의 總面積은 約 3,067m² 1)로 方里面積은 47,698町步에 達하며, 地形은 간척지를 만든 결과 來의 形態가 많이 바뀌어져 있으나 대개 標高 約 200m 以內의 낮은 野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西北쪽 海岸은 산이 없는 편평한 모래사장을 이루고 있다.

歷史적으로 보면 朝鮮朝 中宗時 靈光郡에 屬하여 臨淄島로 불리우다가²⁾ 그 뒤 二百年後인 英祖 時에는 現在와 같이 荏子島로 불리면서 이곳에 荏子鎭이 設置되었다.³⁾ 解放後 荏子島는 務安郡에 所屬하였다가 最近 行政區域 개편으로 新安郡에 편입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本島는 木浦에서 뱃길로 4時間이나 걸리는 곳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두번의 뱃길 이외에는 별다른 交通手段이 없어 이곳을 찾기가 매우 不便한 편이며, 또 荏子島는 ‘간척단 사건’으로 취약지구 이외에는 일반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 다만 섬의 東北端 전장浦에서 잡히는 새우와 西쪽 타리에서 잡히는 ‘타리민어’, 그리고 염전으로 이름이 약간 알려져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大 人文大 考古學科 助敎授

1) 全羅南道史, 全南道廳(1956) p.7 및 孫成祐編 韓國地名辭典 景仁文化社(1974).

2) 朝鮮朝 中宗 25年(西紀 1530年) 頃에 完成을 본 新增東國輿地勝覽 靈光郡山川條에 依하면 臨淄島로 記錄되어 있다.

3) 英祖 41年(西紀 1765年) 頃에 만들어진 輿地圖書 靈光縣 山川條에 依하면 “荏子島周回五十里在牧場”과 또 鎭堡條에는 “荏子鎭在縣西水路百里在牧場”이라는 記錄이 보여 現在의 名稱이 英祖時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先史人들의 主食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고동·굴·소라·대합 等の 貝類는 現在 三頭里 近處가 서식지로 적합하여 養食되고 있을 뿐,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간척지를 이용한 염전으로 이렇다할 水産資源이 産出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住民들은 거의 半農半漁와 기타 염전으로 生計를 꾸려가는 生活 方式을 取하고 있다.

이 調査는 지난 1975年 6月 20日부터 8月 5日까지 實施되었던 三韓海路踏查의 事前調査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全南의 西南海岸一帶의 文化내용은 西海島嶼⁴⁾, 南海島嶼考古學⁵⁾ 조사에 의해 잘 알려졌으며, 또 國立博物館과 서울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도 이일대를 地表調査한 바 있는데 대상은 모두 島嶼地方이 中心이 되었다.

筆者는 “荏子島의 先史遺蹟”을 三韓海路踏查의 事前調査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여 筆者가 이제까지 實施해 온 榮山江流域의 考古學的 調査 研究와는 別途로 島嶼地方을 포함하는 全南海岸一帶의 先史遺蹟 調査의 一環으로 삼고자 한다.⁶⁾ 따라서 여기에 소개하는 荏子島의 先史文化는 이미 조사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때늦은 감이 있으나 유적·유물의 간단한 소개문으로서 “全南 西南海一帶의 考古學的 調査研究”의 세번째 글로서 내놓고자 한다.

2. 荏子島의 先史遺蹟

荏子島의 先史遺蹟은 支石墓와 貝塚뿐인데, 따로 磨製蛤刃石斧가 出土된 例가 있다.⁷⁾

支石墓와 貝塚를 보면, 貝塚는 구산里 鹽洞貝塚과 三頭里貝塚의 2個所가 있으며, 支石墓는 구산里, 大機里, 단도里, 화산里等地에 所在하고 있으나 合計 10基 미만이다. 其他 歷史時代의 遺物은 三頭里貝塚 上層에서 보이는 李朝 後期の 白磁片뿐이어서 이곳 荏子島에 先史時代 以後에는 別로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先史時代의 遺蹟에 대해 各各 說明하기로 한다.

가. 구산里 鹽洞貝塚(그림 1~6)

구산里 鹽洞貝塚은 그곳 김준호씨택 뒷터 標高 約 109m의 野山기슭에 位置하고 있는데, 貝殼層은 구산里로 들어가는 小路 右側의 깎여진 斷面에 잘 나타나 있다. 貝塚은 上部 보리밭인 表土層 바로 아래에 22~50cm의 두께를 가진 貝殼層과 그 아래 黃褐色의 岩盤 및 부식토層을 보이는 單一貝殼層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出土되는 貝殼類는 말백합(Meretrix Petechialis), 토굴(Ostrea Denselamellosa Lischke), 고둥(Papana Jenosa) 등(사진 7)이 주가 되고 있다. (柳鍾生, 「韓

4) 金載元·尹武炳, 「韓國西海島嶼」乙酉文化社(1957)

5) 金元龍·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東亞文化叢書, (1968)

6) 이의 調査로서, 가. 拙稿“蘆花·甫吉島의 先史遺蹟”湖南文化研究 9집(1977) 및 나. 拙稿“珍島의 先史遺蹟”湖南文化研究 10집(1979)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7) 拙稿“全南地方에서 새로이 發見된 先史遺物”—榮山江 流域의 考古學的 調査研究 (5), 湖南文化研究 7輯(1975)

國貝類圖鑑」1977 一志社 및 Morris Percy 「A Field Guide to Shell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참조). 貝殼의 範圍은 南北으로 길이 約 50m 정도이다.

貝塚은 木浦에서 배가 닿는 鎮里와 구산리 사이의 海岸을 막아 간척지를 이루고 거기에 礫이 形成되고 있어서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原來는 이곳에 배가 직접 닿을 수 있는 훌륭한 浦口였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貝塚은 原來 바닷가에 形成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出土遺物을 보면 粘土帶가 보이는 無文土器片, 典型的인 無文土器 底部片, 胴部片 및 格子文의 金海土器片들이다. 따라서 이 貝塚은 無文土器가 주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같이 出土된 金海土器片에 依해 이 貝塚의 下限 年代를 推定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貝塚이 屬하는 時期는 無文土器片中 粘土帶를 가진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략 서기전 2-3세기에서 기원전후 인 것 같다.⁸⁾

나. 三頭里貝塚(그림 7~9)

이 貝塚은 三頭里 최용준씨 所有 보리밭에 位置하고 있는데 現在 耕作으로 인해 많이 파괴되었다. 貝塚은 一種의 砂丘를 이룬 바닷가 모래사장에 形成된 것으로서 貝殼層은 約 40cm의 表土層 아래에 形成되어 있는데 두께는 깊은 곳이 약 30cm 정도이다. 出土되는 貝類는 大蛤, 高筒, 토굴(그림 9) 등이며 貝塚의 範圍는 南北 33.5m, 東西 60m로 상당히 넓다. 出土遺物은 前記 구산리 鹽洞貝塚에서와 같이 典型的인 無文土器가 아니라 金海土器의 영향하에 製作된 굵은 砂粒이 섞인 砂質의 無文土器片들이며 기타 表土層에서는 壬亂後의 李朝白磁片(그림 10)이 散見되고 있다. 따라서 이 貝塚은 無文土器時代에 속하기는 하지만 구산리 鹽洞貝塚보다 年代가 멀어지는 最下限의 無文土器時代와 朝鮮朝後期의 두차례에 걸쳐 使用되었다.

다. 大機里 支石墓(그림 11)

宜寧南氏世葬山碑 바로 옆에 2基가 있는데 하나는 碑를 세울 때 原位置에서 움직여진듯 蓋石이 길쪽으로 비스듬히 경사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現在의 位置가 그대로인 것 같다. 크기는 前者의 것이 南北 1.8m, 東西 2.9m, 높이 0.6m의 橢圓形이며 後者の 것은 圓形으로서 直徑 1.6m, 蓋石의 두께 0.5m인데 蓋石 아래에는 南쪽으로 25×30cm의 支石이 現在 2個 보이고 있다. 그런데 後者の 경우처럼 蓋石이 둥글게 精製되어 있고 또 外部에 支石같이 보이는 石室의 一部가 蓋石 주위에 돌아가면서 나타나 있는 것은 全南 和順郡 道岩面 大草里·鳥峙部落 支石墓 1號⁹⁾에서 볼 수 있는 形式으로 下部構造는 圓形에 가까운 작은 長方形의 石室을 갖고 그위에 蓋石이 그대로 뚜껑의 役割을 하는 蓋石式 支石墓로 支石墓중 年代가 가장 늦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8) 韓相仁, 粘土帶土器 文化性格의 一考察,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1981)

여기서 출토된 점토된 토기는 한상인의 II式 점토대기토의 아류인 C形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I式에서 II式으로의 변천과정인 바 연대는 대체로 B.C.2C 전후에 해당된다.

9) 崔夢龍外, 「榮山江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書」全羅南道道廳(1976)

라. 단도리 支石墓

表高 約 80m 野山の 西쪽 기슭 보리밭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規模는 南北 1.8m, 東西 2.9m, 높이 1.3m인데 下部가 매몰되어 있어 支石은 確認되지 않았다.

其他 花山里 김기지씨택 뒷터에서 支石墓 3基(그림 12)와 그리고 구산리의 道路邊 東쪽 구릉상에 支石墓의 蓋石과 같은 것이 約 7個 보이는데 그중 支石墓로 確實한 것은 1基 뿐이다. 또한 구산리 鹽洞貝塚앞에 支石墓로 보이는 蓋石이 2個 있는데(그림 2) 下部에 岩盤이 보여 支石墓라 斷定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發掘에 依해서만 確實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상에서 소개한 支石墓는 外見上 南方式의 支石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仔細히 보면 石室을 이루는 것들로서 全南地方 餘他の 支石墓가 發掘해 보면 그렇듯이 蓋石式 支石墓가 아닌가 한다.

3. 荏子島의 先史文化

이상 荏子島에서 發見된 先史遺蹟은 貝塚 2個所와 支石墓 4個所(7基)인데 이들 가운데 가장 年代가 올라가는 것은 구산리 鹽洞貝塚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出土된 無支土器片들과 특히 變形粘土帶土器片가 出土하는것으로 보아 기껏해야 靑銅器時代末에서 初期鐵器時代에 걸친 西紀前 4—3世紀 頃에서 기원전후의 3~4百年間 使用되었던 貝塚으로서, 光州市 牛峙洞 용강部落¹⁰⁾이나 松岩洞¹¹⁾ 그리고 變形粘土帶土器片이 出土한 羅州 寶山里 支石墓¹²⁾와 光州 어린이 대공원에서 發見된 住居址¹³⁾들의 연대와 같거나 좀더 늦은 時期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貝塚에서 發見된 金海土器片은 구산리 鹽洞貝塚의 下限年代를 表示하여 줄 뿐만 아니라 同時에 三頭里 貝塚에서 發見되는 砂質의 年代가 떨어지는 無文土器片과도 關聯을 맺고 있어, 荏子島에 제일 처음 전파된 文化의 中心地는 구산리 鹽洞貝塚을 中心으로 한 地域이며 그 다음이 三頭里 貝塚을 中心으로 하는 一帶가 됨도 알려준다.

三頭里는 구산리 鹽洞에 이어서 先史人들의 生活中心地가 되는데, 그 年代는 西曆紀元 前後 1~2世紀에 해당된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三頭里는 地方名으로 선밭머리(船田頭)라 불리우고 있어, 이곳은 原來 배가 닿았던 浦口로 推定되며 또 當時의 交通中心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구산리 鹽洞과 三頭里 貝塚을 形成하였던 無文土器 時代의 住民들은 陸地에서와 마찬가지로 支石墓(고인돌)란 墓制를 채택하였는데, 大機里, 花山里, 단도리, 구산리의 支石墓가 이를 나타내어 준

10) 抽稿, “榮山江流域의 先史 遺蹟·遺物” 歷史學報 第59輯(1973) p. 71

11) 抽稿, “光州 松岩洞의 石器文化”, 歷史學研究 5輯(1974) 및 「光州 松岩洞·忠孝洞 發掘調查報告書」 全南大博物館(1979).

12) 抽稿 「羅州寶山里 支石墓發掘調查報告書」 羅州郡廳(1977).

13) 李榮文, 「全南 어린이 대公園地表面調查報告書」 光州市廳(1981).

다. 그 가운데 大機里 支石墓의 경우 外形上 前記한 大草里의 것과 같은 것으로 그 確實한 編年을 만들 수는 없지만 陸地에서의 전과기간을 고려한다면 支石墓中 年代가 비교적 내려가는 形式으로 貝塚과 거의 같은 時期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荏子島의 先史文化에서 出土遺物上 榮山江유역과 마찬가지로 無文土器를 만들던 支石墓社會가 最初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들 문화가 陸地의 어디서부터 전과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現在 가장 可能性이 많은 곳은 靈光 白岫面이나 榮山江入口의 靈岩灣쪽일 것이다. 그 가운데 白岫面쪽이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現在의 木浦港에서 鎭里로 오는 것보다는 白岫面에서 전장 포로 오는 뱃길이 潮流를 利用하는 보다 安全하고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白岫面 天定里와 大田里 一帶에는 大規模의 支石墓 社會가 存在하였던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¹⁴⁾

이와같은 文化의 전과 루트와 아울러 先史人들의 近海航海術은 現在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多樣하고 빈번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982. 2).

14) 拙著, 「全南考古學地名表」 全南每日出版社 1975 p. 41



그림 1. 구산리 염동굴전경



그림 2. 구산리 염동굴 支石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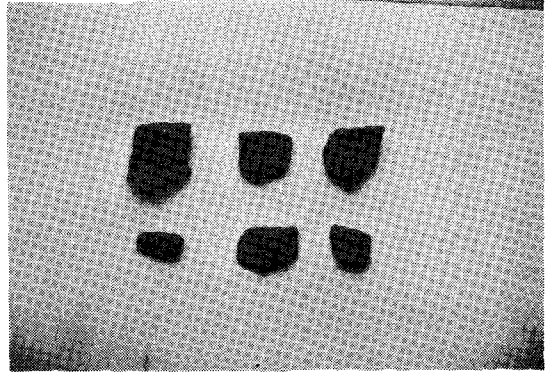


그림 3. 염동굴전경 出土 無文土器 : 口緣部片 및 粘土帶土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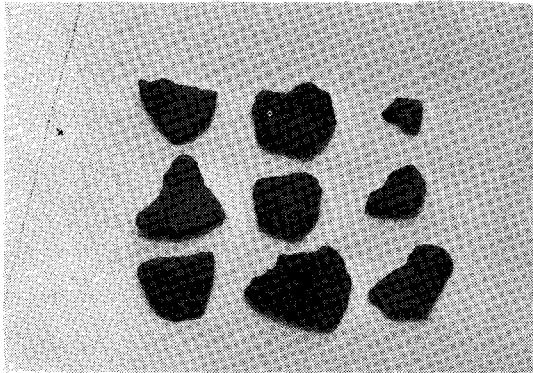


그림 4. 염동굴전경 出土 無文土器胴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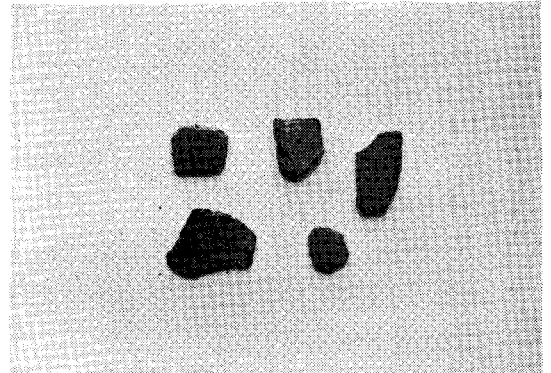


그림 5. 염동굴전경 出土 無文土器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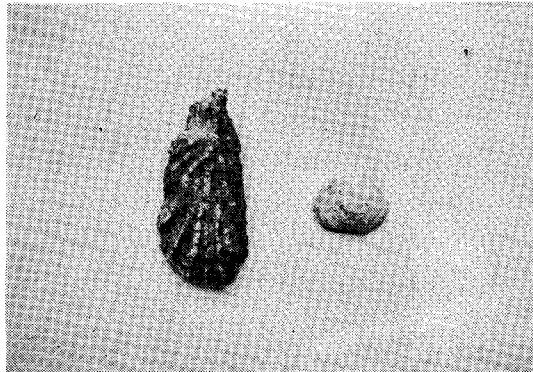


그림 6. 염동굴전경 出土 貝殼類



그림 7. 삼정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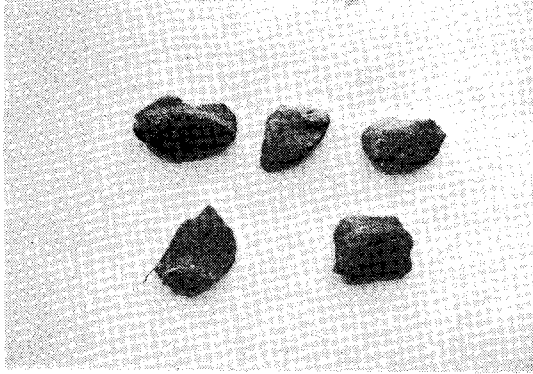


그림 8. 三頭里貝塚 出土 無文土器 胴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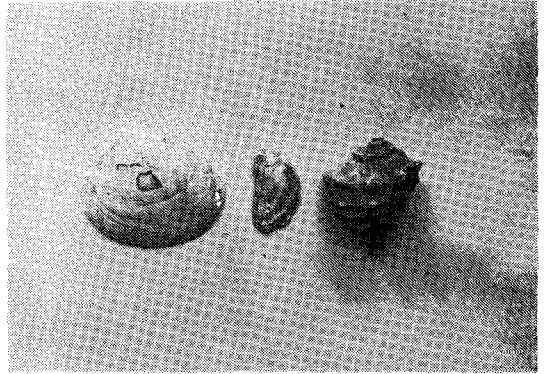


그림 9. 三頭里貝塚 出土 貝殼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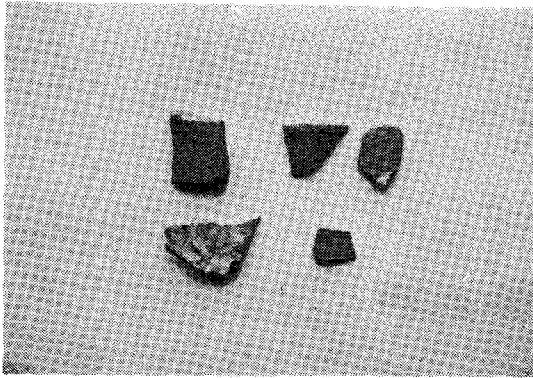


그림 10. 三頭里貝塚 出土 李朝後期 白磁片



그림 11. 大機里宜寧南氏 世葬山碑 옆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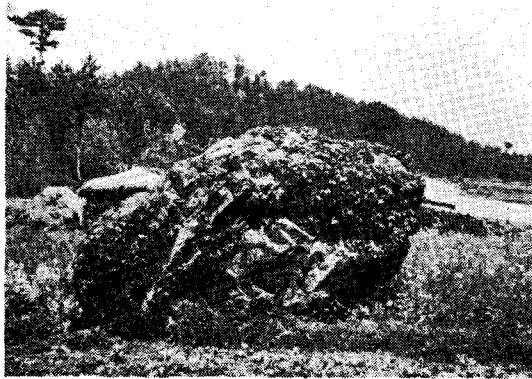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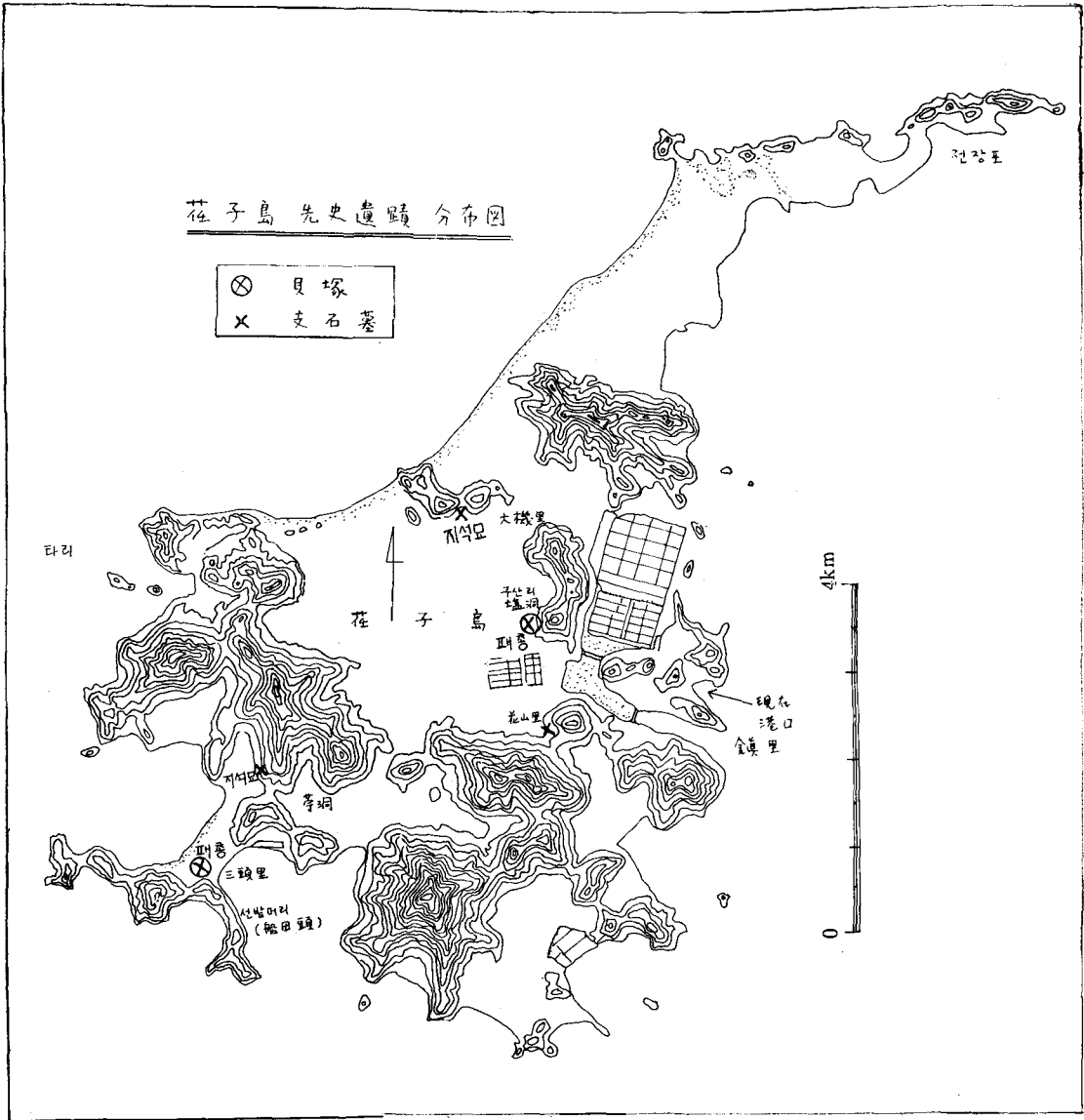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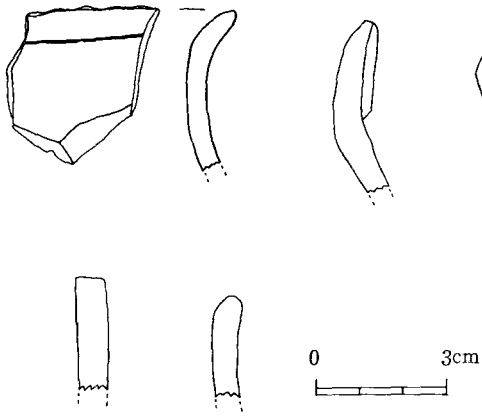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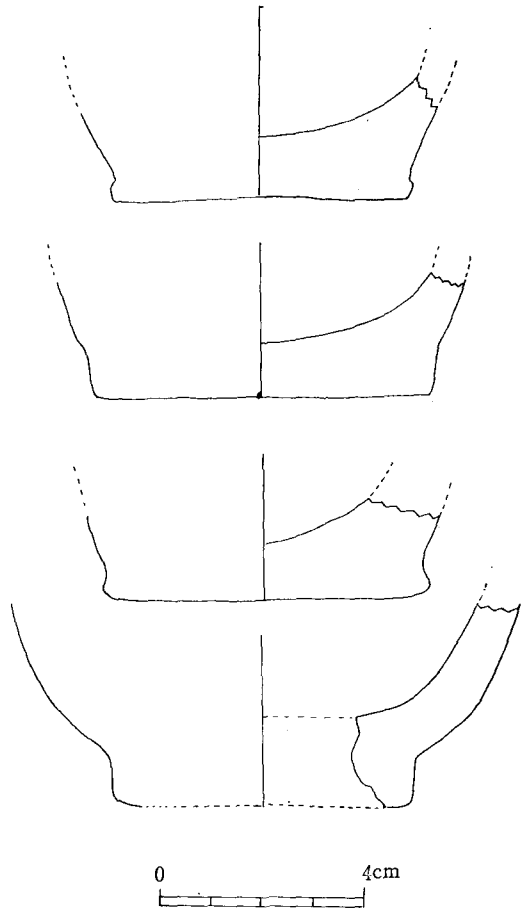
그림 12. 화산里 김기지氏댁 뒷터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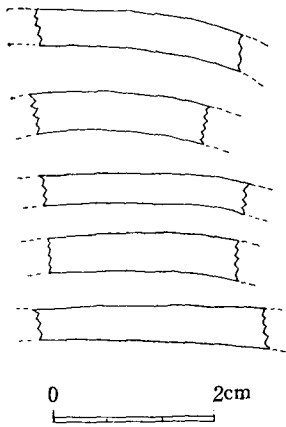
圖面 1. 在子島 先史遺蹟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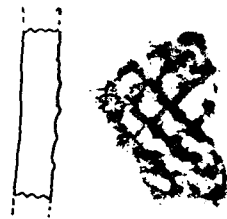
圖面 2. 子산里 鹽洞貝塚出土 無文土器口緣部片



圖面 3. 子산里 鹽洞貝塚出土 無文土器底部片



圖面 4. 염동貝塚出土 無文土器片 器壁實測圖



圖面 5. 子산리鹽洞貝塚出土 金海土器片